

정계도 재계도 '鐵人' 추모 물결

故 박태준 명예회장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여아도 애도... 박지원 "박총리 물러날 때 울었다"

지난 13일 타계한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14일에도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김황식 총리·박희태 국회의장·전두환 전 대통령·이규택 전 포스코 회장·박종태 포항제철 2대 회장·박용현 두산 회장·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정인선 현대차 부회장·유종하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부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고바야시 켄 미쓰비시 사장 등 정·재계 주요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소를 방문해 박 회장의 부인과 동생, 아들 등 유족을 만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셨다. 많은 사람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소에는 영정과 함께 고인이 생전에 받았던 총무 무공·화랑 무공·국민훈장 무궁화장이 놓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고인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이수선 전 총리는 "1957년 일등병 때 국방부 인사과장인 박 회장을 처음 만났고 그 이후 평생 존경해 왔다"며 "업적이 너무 크신 분이려 모든 국민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아는 이날 '포철 신화'의 주역이자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인에 대해 한복소리로 애도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박 회장은 산업화의 역군이고, 부국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거인"이라며 "무역 1조 달러라는 기적의 초석을 다진 박 회장의 업적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과란만장한 일생이고 영욕의 삶이었지만, 고인이 군인·기업인·정치인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높이 평가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철강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고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고인과 정치활동을 함께한 정치인들도 박 회장의 명복을 빌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별세 소식을 듣자마자 이희호 여사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며 "2000년 박태준 총리가 부동산 명의신탁 파문으로 물러날 때 이임식장까지 찾아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박 총리를 좋아했다"고 각별함을 표했다.

고인은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 전 원내대표에게는 박 전 총리가 그만큼 각별할 수밖에 없다.

발인은 17일 오전이며 영결식은 발인에 이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다. 발인·영결식 시간과 장지 등은 유족 측과 정부가 논의 중이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박태준 전 총리 연보

1927년 경남 통령군 장안면(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평리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

1946년 외세대학교 기계공학과 2년 마치고 중퇴

1953년 육군중령으로 5사단 참모, 육군대학 입교

1954년 육군대학 수석 졸업, 장욱지와 결혼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

1964년 대한중석 사장으로 발령

1967년 종합제철건설사업추진위원장에 임명, 박정희의 '제철강국' 관수 특명

1968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POSCO)' 사명확정, 초대 사장 취임

1970년 포항 1기 건설착공, 열연 중후판공장 착공

1972년 영일만의 첫 공장으로 중후판공장 준공, 첫 제품 출하

1973년 제1기로 첫 출선 성공, 일관 종합제철공장 완공(연산 조강 103만 제재), 포항2기 건설 종합 착공

1981년 포철 초대 회장 취임, 제11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민정당), 비례대표 당선

1985년 포항공과대학교 설립 착수

1990년 민정당 대표 취임, 민주자유당 출범, 최고위원 취임

1993년 포철 사무총사로 전방위 비자금 조사

1997년 포항 북구 보결 당선, 자민련 총재 취임

2000년 자민련 총재 사퇴, 국무총리 취임과 사임, 포철 민영화 완료

2001년 포철 명예회장 재위촉

2005년 포스코청암재단 회장 선임

2008년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 취임

2011년 12월 13일 타계

연합뉴스

17일 영결식... 사회장으로

고(故)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유족 측은 14일 박 명예회장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5일장을 치르고 17일 발인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의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조문을 위해 빈소를 방문하는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벨기에 살상극... 5명 사망·120여명 부상

리에주시 30대 남 수류탄 던지고 총 난사

벨기에 남동부 리에주 시 도심에서 13일(현지시간) 30대 남자가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하는 무차별 살상극을 벌여 영유아와 10대 등 최소 5명이 숨지고,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해 120여명이 다쳤다.

범인은 현장 부근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나 조직범죄는 아닌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다.

뉴스통신사 벨가와 공영방송 VRT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0분(한국시각 오후 8시30분)께 총기소지 전과자 노르딘 암라니(33)가 리에주

도심 생랑베르광장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수류탄 3발을 던지고 총을 쏘아댔다.

이로 인해 15세 소년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17세 소녀와 75세 노인, 생후 17개월 여아도 끝내 이날 숨졌다.

수사 당국의 부상자 집계는 현재까지 123명이다.

생랑베르 광장 인근은 벨기에 프랑스어권 주도인 리에주 시의 변화가 마칩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려 광장이 인파로 북비며 인명 피해가 컸다.

목격자들은 버스정류장 쪽에서 폭발음이 3차례 잇따라 난 뒤 한 남자가 총을 쏘아댔으며 여러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후 광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숨을 곳을 찾는 등 공포에 떨었다.

그는 총기와 마약,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이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주중 한국대사관 공기총 피격

대형 유리창 파손 반한감정 공격 가능성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한국 대사관에 공기총 공격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날아들어 중국 공안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13일 낮 12시 30분(현지시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의 점심 시간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14일 밝혔다.

외부에서 날아든 쇠구슬 때문에 대사관 내부 경제동(棟) 휴게실의 대형 방탄유리에 크개 금이 갔다. 대사관 측은 사건이 발생하고 수 시간이 지

나 방탄유리가 파손된 것과 파손된 형태를 확인하고서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베이징 공안국에 신고했다.

베이징 공안국도 곧바로 출동해 현장 조사와 더불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파손된 방탄 유리창을 면밀하게 촬영하고 공기총탄으로 보이는 쇠구슬을 겨냥 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2월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한국 해양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발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리 3호기·울진 1호기 원전 멈췄다

고리 원전 3호기(95만kW)가 14일 오전 8시36분께 멈춰서면서 발전이 정지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당국은 가동 중지의 원인을 잠정 조사 중이다.

한수원은 "터빈발전기의 과전압 보호계전기 동작하면서 발전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발전 과정에서 과전압이 걸리면 자동으로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계전기가 가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력당국은 전날 울진 원전 1호기(95만kW)의 가동 정지에 이어 이날도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따라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면서 비상 대응을 나섰다.

/연합뉴스

"아버지 잃었다"

광양제철·광양시 추모 분향소 설치

"광성 포스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견지해온 박 회장을 우리 모두 그리워할 것입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광양제철은 아버지를 여읜 듯한 슬픔에 잠겼다.

박 회장은 1981년 직접 부지를 선정해 1987년 최초로 쇠물을 생산하기까지 오늘의 광양제철을 있게 한 주역이었다.

그래서 광양제철 직원들이 박 회장을 애도하는 마음은 더 각별하다.

사실 박 회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광양제철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광양제철 부지로 충남 아산만을 선호했다. 하지만, 박 회장이 광양만이 입지 적지라고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광양제철은

지금의 자리에 동지를 틀게 됐다. 이 사연은 '광양제철 탄생의 신화'로 면면히 전해지고 있다.

광양제철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은 광양제철 직원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평생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포스코의 표상'이었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은 제철소내 어울림체육관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광양시가 14일 광양읍사무소 3층에 설치한 분향소에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전체 시청 직원들에게 근조 리본을 착용토록 하고 발인일에 맞춰 광양시기를 조기로 게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는 제철소 건설로 광양을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키운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추모하기 위해 14일 광양읍사무소 3층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성웅 광양시장이 헌화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정가 라운지

이은, 순천시장 보선 출마



이은(59)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순천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생활 30년을 마치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며 순천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차관은 "시장은 시민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창의적인 정책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며 "거짓이 없고 부정부패를 멀리하며 시민을 섬기는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고과와 한국해양대를 나온 이 전 차관은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을 시작,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해수부 안전관리관, 해수부 차관을 역임했다.

서채원, 강진군수 보선 출마



서채원(50) 전 광주시의회이 14일 강진 아트홀에서 강진군수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서 전 의원은 "7년 간 기초와 광역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결같이 서민과 애환을 함께했고, CEO로서 기업을 경영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위기를 극복하며 성공사를 만들어 왔다"며, "고향 강진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강진에 새 희망을 불어넣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남철희 choul@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방수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 (병의,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청이 들리는 분
- 불면증 / 학습장애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범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경매특자

-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 20년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공동으로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포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시세-80%+α (6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담 010-7112-3135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록세습 · 개인신용관리를 청천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1년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담 010-5554-2100